

박물관문화 Museum Culture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식지 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Newsletter No.1 Spring / Summer 2002



봄바람-세여인 / 한애규 / 테라코타 / 2001 /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또 다른 미술사 : 여성성의 재현〉 2002. 3. 6 ~ 6.29

발간사 문화의 나눔을 위하여
전시리뷰 또 다른 미술사 여성성의 재현
신 소장품 남정 박노수 <關江>
조사연구 분원리 단상

박물관 사람들 진짜가 되는 길
담인복식미술관 나의 유물 수집이야기 / 담인뉴스
박물관 소식 전시소식
소장품 갤러리 백자철화 포도문 향아리

2002 봄·여름 (창간호)



대학박물관의 소명과 역할을 사회로, 미래로 확장시키기 위해 출발하는 『박물관문화』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은 1935년 설립된 이래 지난 68년간 문화의 중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심도 깊은 특별전, 기획전, 학술주제전을 통해 한국 문화계에 신선한 반향을 일으키며 전통예술문화연구에 새로운 활기와 창조적 에너지를 불어넣어 왔습니다.

21세기는 문화예술의 힘이 창의성의 원천이 되는 진정한 문화의 세기입니다. 국가와 성별의 경계를 넘어 세상을 하나로 아우르고 평화로 이끌 수 있는 힘, 그것은 진실된 아름다움과 사회를 향한 격이 없는 포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삶의 결정체인 문화유산을 지키고 연구하며, 이것을 다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언어로 일구어 내는 박물관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통합적이고 친화적인 것입니다. 인류의 지식과 문화의 가장 중요한 진보는 나눔과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뜻깊은 창간을 맞는 『박물관문화』를 통해 우리의 삶과 문화를 보다 풍요롭게 하는 창조적인 소통과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장상

현대를 '박물관의 시대 (The Museum Age)' 라고 합니다. 인류의 문화유산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장소인 박물관의 변성은 문화가 삶의 구심점을 이루게 되었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그것이 소유보다 공유의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의 나이도 벌써 70이 다 되어 갑니다. 그 동안 우리 박물관은 전통유물과 현대작품을 발굴 수집할 뿐 아니라 활발한 전시활동을 통해 문화의 소통과 교육의 기능을 담당해 왔습니다. 박물관은 문화를 단지 전승 보존하는 곳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내고 또한 나누는 곳입니다. 우리 박물관 소식지는 많은 이들과 나눔으로써 매 순간 살아나는 진정한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창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박물관의 새 소식 뿐 아니라 '전시 리뷰' '소장품 갤러리' '박물관 사람들' 등을 고정란으로 마련하여 정보의 단순한 전달로 그치지 않고 독자들과의 교류의 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본 소식지가 모든 이들에게 살아 숨쉬는 문화 현장을 체험하게 하는 아름다운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장 윤난지 / njyun@mm.ewha.ac.kr

전시리뷰

이제는 '미술을 위한 미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미술'

〈또 다른 미술사 여성성의 재현〉 전

본 전시는 한국 근 현대 미술작품들에서 재현된 '여성성'의 차이들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이를 전시의 분석적 도구로 사용하였다. 전시 기획자가 이미 전시 서문에서 밝혔듯이 여기서 '여성성'이란 '기존의 남성적 시각과 여성적 체험 사이를 오가는 유동적 기호'로 정의된다. 하지만 이 특별전을 단지 '다양한 여성성의 기호들을 미술에서 찾아내고 불러모아 보여주었다' 라고만 설명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여성성'의 기호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재현의 투명성(transparency)에 도전함으로써 여성이라는 존재에 관한 보다 다층적인 조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 전시는 '여성성'의 기호가 생성되는 보다 넓은 맥락을 노출시키고, 나아가 과거의 치우친 시선에 교정적인 일침을 가하는 교육적인 입지를 세우고 있기도 하다. 본 전시가 표방하는 바 이와 같은 수정주의적(revisionist) 입장은 이 특별전을 단순히 전시적(theatrical)이라기보다는 행위적(performative)인 위치에 서게 하며, '미학적 오브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주의적 전시'라기 보다는 정보전의 성격에 가까운 내용적 핵심을 가지게 한다.

몇 가지 방식에 있어서 전시는 기존의 전시 유형을 탈피한다. 우선 작품 선택에 있어서 이 전시는 '누가 그랬나' 하는 모더니즘적 예술 거장 중심의 기준에서 벗어나 '개별작품 자체가 가지는 기호학적 의미'를 그 선별 기준의 우선적인 대상으로 삼는다. 이와 같은 태도는 '모더니즘적 천재작가'가 주장하던 가장된

(pretentious) 권위를 벗기며, 개별작품으로 하여금 그 자신이 가지는 메시지로써 자신의 가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입지를 마련해 준다. 매체 상으로도 유화나 수묵화 뿐 아니라 조각, 목판, 수예, 테라코타, 비디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들이 섞여 전시된 것을 볼 수 있으며, 디스플레이 상으로도 흔히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발견되는 '연대기 중심의 디스플레이' (이것은 그 연속성과 배타성에 있어서 남성적 담론을 대변한다)에서 탈피하여 '주제별 구성'이 시도되었음을 볼 수 있다. 소위 '여성주의 미술전' 이면서도 여성작가의 작업 뿐 아니라 남성작가의 작업도 함께 전시되었는데, 이러한 점은 이 전시가 단순히 '남성담론에 대한 비판' 일 뿐 아니라 일부 '여성주의 미술전에 대한 코멘트'이기도 함을 상기시킨다. 여기서는 '제 1 세대 페미니즘 미술'이 지니던 본질주의적이면서 분리주의적이던 태도와는 기본적으로 구별되는 '보다 넓은 지평'이 추구하고 있다.

미술전이니만큼, 정교하게 구성된 전시장을 거닐며 하나 하나의 작품들에서 새로운 의미들을 길어 올리는 것도 관람자에게 쏟출한 기쁨을 준다. 무엇보다 '과거의 작업이 지니는 현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도전적으로 생각하도록 관객을 일깨움으로써 이 전시는 그 기능적이고도 교훈적인 가치를 발휘한다. 한 예로 1930년에 그려진 최우석의 전통적인 〈여인상〉은 2001년에 그려진 이순종의 〈여인〉과 나란히 걸려 있는데, 이러한 배치는 1930년대 작품이 가지는 2000년대 동시대적인(contemporary) 의미로 관람자를 불러들인다. 이러한 '과거 미술과 우리시대 미술의 대화'는 전시장 곳곳에 가득 차 있다. 전시장 입구에 놓여진 〈봄바람-세여인〉이 고대의 〈삼미신〉에 대한 '현대 여성적 답변'이라 한다면,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그물망처럼 엮어 만든 함연주의 〈큐브 머리카락〉은 그 섬세함과 연약함(vulnerability), 복잡한 구조에 있어서 토니 스미스의 〈Die〉(1962)와 같은 정방형 철제 큐브에 대응적 위치를 가지는 후기 구조주의적 실체이다. 절제된 색상과 형식에서 미니멀리즘의 영향을 반영하는 김주현, 황혜선의 작품



한여름 (물을 바라보는 사람), 테라코타, 1995, 26x19x94cm, 작가소장

들이 '주문 생산된 공산품'이 아니라 '극기적 인내로서 도달되는 수작업'이란 점은 형식과 내용이 엇갈리는 일종의 반어법적인 제스처어를 느끼게 하고, 김원숙이 낱장의 종이들에 빠른 속도로 스케치한 '날아가는 순간들'은 마치 역사화의 중후한 무게와 부동성, 그리고 그 유화들의 수명만큼이나 끈질긴 권위들에 도전하는 듯 하다.

하지만 고대, 르네상스, 현대에 걸쳐 미술사를 배경으로 끝없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상관적인 의미들과는 별도로, 이 전시에는 더 이상 '미술을 위한 미술(art for art's sake)'을 고집하지 않는 우상 타파적인 성향, 자기 비판적인 면모가 또한 골수깊이 자리함을 느낀다. 이 전시의 목적은 '예술'의 이름으로 관람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람자를 최신 정보들로 무장시키고, 그들에게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자기 구축의 기회를 부여하며, 그들을 강하게(empower) 만들자는 데 있다. 새로운 예술문화, 새로운 사고의 방식을 창출해 가겠다는 매우 진보적이고도 공리적인(utilitarian) 목적이 이 전시를 이끄는 것이다. '오늘날' '나의 삶'에 필요한 '동시대적인 정보'들이 심지어는 '과거의 유물/작업들'을 통해서도 제공되는 이런 경우들에서, 박물관은 과거 어느 때보다 '관람자 중심적인 기관'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우리를 위한 미술(art for 'our' sake)'의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박물관의 기능이 현대화되고 있는 것이다.

관람자의 위치 뿐 아니라 미술의 자리 또한 이 전시를 통해 변화된다는 점을 말해야 할 것 같다. 지금까지 미술작품이 "단순히 주어진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데올로기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면 이와 같은 전시를 통해 이 설명은 달라져야 할 듯 하다. 우리의 의식과 마음을 건드리며 미술과 문화에 대한 활발한 토론들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전시에서라면, 미술은 차라리 '새로운 이데올로기들이 생성되는' 장소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미술이 더 이상 어떤 '재현'이나 '은유'가 아니라, 하나의 '현재 진행형 동사'로 움직이게 되는 양상을 우리는 여기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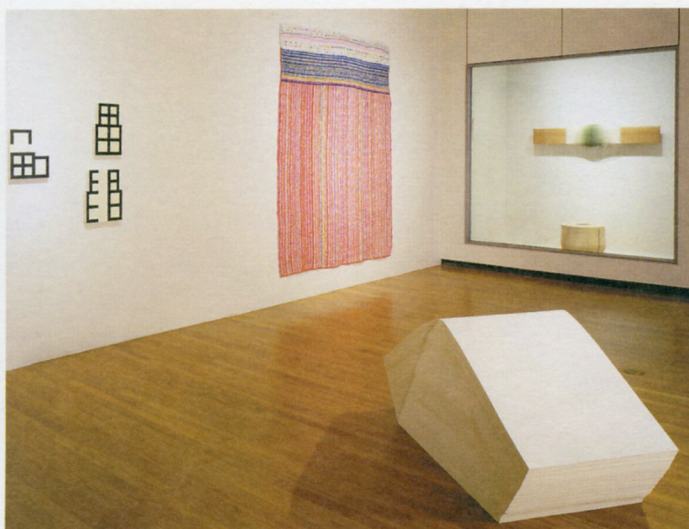
따라서 당신이 아직 이 전시를 보지 않았다면, 그 구성 방식상으로는, 내용상으로, 어느 미술전과 구별되며, 당신을 정체성과 관련된 최신 담론들로 무장시켜 줄 본 전시는 발품을 팔아 방문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당신의 '성별' 보다는 당신의 '경험'을 부르는 이 전시는 '중심이 아닌 주변'에서 본 적이 있는 모두를 반기며, 약함 속에서 강함을 끌어내는 지혜를 가르치고, 이에 필요한 용기를 북돋아줄 것이다. 전시장 입구에서 있는 한애규의 <물을 바라보는 사람>이 애잔하게 가슴에 남는 것은 아마 이런 이유에 기인할 것이다. 흔히 이런 조각상이 전시되던 소 갤러리의 내부에 더 이상 서 있지 않은 이 조각상은 갤러리 밖의 통로, 즉 박물관이 외부 세계와 인접해 있는 건물의 입구에 서서 박물관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이는 이 전시의 의미



이제창 <독서하는 여인> 1937, 목판에 유채, 33x24cm, 호암미술관

가 박물관 내부가 아니라 박물관의 외부로 향한 목소리임을 상징하는 듯 하다. 과히 죽음에 이르는 고통들과 삶을 넘어서서 존재하는 희열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지개처럼 차연으로 펼쳐져 있는 온갖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지점들. 그 다양한 위치들에서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용기 있게 살아온 '여성'들의 모습에서 당신은 인생에 만연한 에너지의 충만을 느낄 것이다. 시대적, 미학적, 사회적, 문화적 '다름'들을 각기 표상하며 서 있는 이 작품들이 서로의 거울 이미지로 충돌하며 만들어 내는 엄청난 힘(voltage) 속에서, 우리 또한 새로이 자신을 만나고, 스스로를 충전시키는 경험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래본다.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과정 신채기 / synn@ewha.ac.kr



제 2전시실 '여성적 소재와 기법' 전경



박실 <생명현상-수수께끼> 1996, 동판, 작가소장

남정 박노수는 청진 이상범에게 사사하고 서울대 미대를 졸업하였으며, 1956년부터 1962년까지 이화여대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했다. 흔히 박노수의 작품세계는 '격조의 예술'로 정의되는데 바위나 노송에 인물이나 말을 곁들이는 간결한 구도와 날렵한 필선, 맑고 투명한 색채를 특징으로 한다. 버드나무 가지 드리워진 강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두 마리 말을 그린 이 작품은 남정 특유의 테마와 기법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전면의 노란 들판과 원경으로 처리된 푸른 산봉우리가 산뜻한 색상의 대비를 이루고 있으며, 회색과 갈색의 대조를 이루는 두 마리 말을 중심으로 물오른 버드나무 가지의 유려한 필선이 아름답다. 버드나무 가지 사이의 검은 먹점은 화면에 경쾌한 생동감을 더해준다. 전통적인 남종화의 필선과 북종화의 감각적인 채색 기법이 정선된 품격으로 접목되어 동양적인 관념의 세계가 근대적인 감각으로 세련되게 구현된 경우이다.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객원연구원 권영진 / yjkwon@hotmail.com



藍丁 朴魯壽 <閔江> 1987, 종이에 수묵담채, 158x111cm,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조사연구

분원리 단상



분원리 발굴은 2001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분원요지는 1752년부터 1884년까지 조선왕실의 백자를 생산하던 왕실관요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최고의 원료와 기술을 보유한 조선 후기 백자제작의 중심지였던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주요사적을 발굴한다는 벽찬 설레이므로 작업을 시작하였고, 그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층위에 따라 양파 껍질 벗기듯 땅을 열어가 갈 때마다, 150년간 운용되었던 가마의 흔적들이 무너진 가마벽편들과 모래, 그리고 폐기된 엄청난 자기편들 아래에서 드러났다. 가마는 암반을 판 바닥면을 그대로 이용하였고, 불창기둥은 흙으로 대

충 빚어놓은 것처럼 허술해 보였다. 이처럼 조악한 시설에서 담옥빛의 백자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당시 도공들의 불사용 기술과 가마축조 기술로만 치부해 버리기에 너무도 큰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단아함이었다. 외적인 형태보다는 실질적인 열매를 중시하던 옛 선조들의 정신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 발굴팀은 그 뜨거웠던 태양을 견디고 찬서리가 내려 하얗게 변한 분원을 뒤로 한 채 서울로 올라왔다. 돌아보면, 분원리 발굴은 조선 후기의 관요인 사용원 분원에 대한 호기심과 그간의 궁금증을 한소끔 해소시켜준 작업이었다. 4개월이라는 기간은 인간이 극적인 경험으로 변화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러나 15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의 굴곡을 펼쳐 보이기에는 또 너무나 짧은 시간이 아닐까?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객원연구원 임영옥 / ok0429@hanmail.net

박물관 사람들

'진짜'가 되는 길 인턴 체험기



전시 도록 교정이 있던 날 밤. 우리는 새벽 공기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아마 그 날은 새벽마다 배달되는 조간신문보다 늦게 집에 들어갔을 게다. 술 마셨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시간에 집에 들어간 적이 없었으므로, 게다가 맑은 정신으로, 뭔가 열심히 일하고 온 듯한 자태로 집에 들어선 나를 보고 우리 가족들은 매우 놀라워했다. 그리고 나 또한 내 자신이 참말 대견스러웠다. 사실 내가 인턴에 지원했을 때, 그리고 첫 출근 날만 해도 이렇게 많은 일에 참여하게 될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었다. 그저 힘쓰는 일 정도 하게 되려니 생각했었고, 시키는 일만 그럭저럭하고 이력서 한 줄이나 늘려 보려는 그야말로 무사 안일한 자세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보통의 미술관 박물관 인턴들의 하는 일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턴으로서 내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턴기간동안 전시의 시작 단계인 기획에서부터 작품선정 섭외 보험가입 작품대여 홍보 도록제작 전시장 작품배치 등의 전시 진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직접 참여해 전시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또한 이 기간을 통해 전시 이외의 박물관 업무들도 어찌 너

머로 접해 볼 수 있었다는 것 역시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것은 작품 섭외를 위해 작가 선생님들의 작업실을 직접 찾아갔던 일이다. 그것은 떨리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했던, 처음 겪어 보는 짜릿한 기억이었다. 또 새벽까지 눈에 불을 켜고 도록의 오자를 찾아야 했던 일, 집으로 돌아오는 길의 그 산뜻한 새벽 공기를 잊을 수 없다. 미술사에 길이 남을 유명한 회화 작품들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고, 또 직접 디스플레이 해 볼 수 있었던 일, 전시 개막일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작업을 자랑스럽게 공개했던 일(정말 뿌듯했다. 자식을 낳으면 이런 기분일까?) 등등... 지난 인턴 기간 동안 나는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느꼈다. 물론 이를 위해서 내 생활의 활력소인 음주가무를 뒤로 한 채 야근을 불사해야 하는 고통스런 슬한 밤들을 보내야 했지만, 내게 있어 이 시간들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기억이었다. 인턴 기간의 반 정도를 체험하고 난 지금, 예술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책임감 있는 큐레이터, '진짜' 큐레이터가 되어 있을 미래의 내 모습을 조심스레 그려본다. 우리 박물관에서 경험했던 이번 인턴 경험은 내게 있어 '진짜'가 되기 위해 내디딘 첫걸음이 아니었나 싶다.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나는 진짜 큐레이터가 되고 싶다.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인턴 김가연 / royalpp@hanmail.net

담인복식미술관

나의 유물 수집 이야기

나의 옛 물건과의 인연은 상당 부분 집안에서 비롯되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내사 물건(궁에서 나온 물건)으로 많이 갖춰 놓았던 것이 고미술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과 안목을 키워준 과정이었다.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으면 유물의 과학적 구조까지도 보여 사랑스럽지만 그 이면에는 이 모두를 한데 모으기 위해 치분된 엄청난 재화와 또 이들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낮과 밤의 고달픔이 함께 떠올러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 자리를 빌어 유물 수집에 얽힌 이런 저런 이야기를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

1970년대 어느 날 인사동에서 첫눈에 내 마음을 사로잡는 물건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광해군(1575~1641) 재위시절 중국으로 가는 양씨 성을 쓰는 병마절도사



은제 화형 뒤꽂이, 조선 20세기, 42~5.8cm

에게 내린 은상감 말안장과 지금 전시중인 용무늬 자개가마이다. 나는 몇 달 동안 잠을 못 자면서 그 물건들만을 생각했다. 꿈에도 떠오르는 그 모습을 잊을 수 없어 마침내 몇 달 뒤 인사동 길가에 있던 집을 팔아서 두 유물을 구입했다. 대결단이었다. 그 때 내게 무슨 그런 용기가 있었는지 정말 무모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옛 물건을 수집하는데는 무모하지 않고는 모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나의 변하지 않는 지론이다. 또 이런 대단한 결단 이외에 골동상의 배려로 외국인에게 넘어갈 뻔했던 물건을 구입한 적도 있다. 현재 전시실에 전시중인 전체가 칠보로 입혀진 유선철보비녀이다. 1970년대 남대문 근처 상점에 나와 있던 이 비녀를 한 번 보고는 잊혀지지 않아 몇 번이나 찾아가서 진열장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느 날 가게 주인인 노인이 나를 가게로 불러들여 말하기를 “당신과 어떤 외국인 남자 둘이서 번갈아 가며 와서 그 물건을 들여다보았소. 그런데 당신은 이제까지 22번을 와서 보네 그려.”하며 “이왕이면 한국인에게 남기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당황했다. 훗날까지 기억하다니. 이 밖에 또 아주 우연한 기회에 귀중한 유물을 발견한 경우도 있다. 당주동의 한 시계방에서 길이 7센티의 용머리 첩지 꼬트머리를 수리용 공구로 쓰던 것을 보고 사들인 것이다. 당주동은 대궐에서 가까운 동네였기 때문에 재개발되기 전인 1970년대에 누군가가 내놓은 그런 물건이 시계방으로 흘러들어 간 것 같다. 이렇듯 나의 자식같은 유물들은 각각 사연을 가지고 나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유 없는 무덤이 없듯이 사연 없는 옛 물건은 한 점도 없다.

담인복식미술관 관장 장숙환

담인뉴스

담인복식미술관 영암 최원립 장군(17세기) 출토복식 인수

담인복식미술관은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출토 최원립 장군의 복식을 탐진 최씨 문중으로부터 기탁 받아 세척과 소독을 마치고 바느질 보수 작업을 진행중이다. 단령(團領), 창의(悤衣), 철릭(帖裡), 중치막(中致莫) 등 다양한 출토 복식은 수 백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비단의 문양과 광택이 그대로 남아 있어 당시 화려했던 복식 문화를 보여준다. 특히 협수(夾袖)로 추정되는 의복이 다수 있어 주목된다. 2002년에는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2003년에는 <탐진 최씨 출토유물 복식 자료전>(가제)을 개최하여 학회와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2002년 월드컵 기념 <朝鮮王朝의美>展에 담인복식미술관 유물 출품

2002년 월드컵을 기념하여 일본 북해도 신문사와 사단법인 국제예술문화진흥회가 개최하는 <朝鮮王朝의美>전에 본관 소장 노리개, 비녀, 화각장도, 가락지, 갓끈 등 장신구 53건을 출품하였다. 2001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北海道立近代美術館, 北海道立函館美術館, 廣島縣立美術館, 岐阜縣美術館을 순회중인 이번 전시회에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호암미술관 등을 포함한 국내 우수 기관 32개 박물관의 서화, 도자기, 복식 등의 문화재 400여점이 함께 출품되었다. 관람객 중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와 교포가 된 어느 노인은 유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등 우리 유물을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재일교포들에게 큰 감동과 감회를 선사하고 있다.



담인복식미술관 문의

담인복식미술관 연구원 김주연 / Regina@mm.ewha.ac.kr
TEL. 02-3277-3753 FAX. 02-3277-3153

박물관 소식

전시

〈또 다른 미술사 여성성의 재현〉 개막행사 2002. 3. 6 ~ 6. 29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은 2002년 봄 특별전으로 〈또 다른 미술사 여성성의 재현〉전 개막행사를 3월 5일 가졌다. 개막 행사에는 정의숙 명예이사장, 윤후정 이사장, 장상 이화여대 총장, 오광수 국립현대미술관장, 지건길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미술문화계 인사 250여명이 참석했다.

● 이전 전시 / 2001 가을 특별전 〈도요지 발굴 성과 20년〉 〈전통미술 수집 5년〉 2001. 9. 6 ~ 12. 20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은 한국 도자 연구의 중심 기관으로서 수행하였던 20여 년간의 발굴 성과를 공개하는 〈도요지 발굴 성과 20년〉전과 최근 5년간 박물관이 수집한 전통미술품을 공개하는 〈전통미술 수집 5년〉전을 개최했다. 본 전시는 발굴 조사에서 수집된 새로운 자료들의 전시와 함께 「도자사 연구방법으로서의 '발굴」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 학술 심포지움도 개최하여 세계 각국 전문가들의 교류와 관심을 이끌어내었다.

● 다음 전시 / 〈문방구전〉 2002. 9. 2 ~ 12. 20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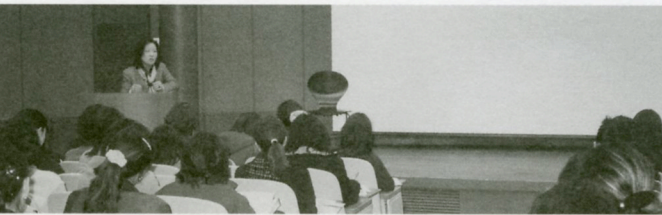
2002년 가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을 대표하는 조선시대 문방구를 통하여 청아하고 고담한 선비문화의 품격과 운치를 탐색해 보는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

전시설명회

특별전 기간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큐레이터가 함께 하는 전시설명회가 있다. 특별히 학생이나 일반 단체가 요청을 할 경우에는 다른 요일 다른 시간에도 별도의 전시설명회를 들을 수 있다.

작가와의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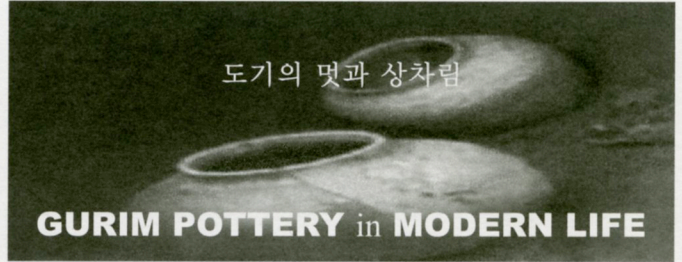
〈또 다른 미술사 여성성의 재현〉 전시기간 행사로 작가를 초대하여 그의 작품세계와 작업에 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듣는 〈작가와의 대화〉시간을 갖는다.

- 일시 매 월 셋째주 금요일 오전 10:30-12:00
- 장소 박물관 시청각실
- 초대작가 3월 15일 - 정종미 / 4월 19일 - 윤석남 / 5월 17일 - 홍승혜

지역전통문화육성 프로그램 〈월출산 달빛맞이 야외공연〉

본관은 전라남도 영암군과 함께 수려한 월출산의 맑은 달빛을 맞이하는 한국 전통예술의 작은 마당을 연다. 이는 대자연과 대화를 시도하는 우리국악의 본래 모습을 복원하고자 하는 전통문화예술인들의 자진참여와 도합사의 협조로 매월 음력 보름전야 14일 월출산의 달이 뜨는 시간에 열린다.

영암도기문화센터 2002 특별전 〈陶器의 멋과 상차림〉 2002. 3. 29 ~ 6. 30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은 영암도기문화센터와 함께 한국 도기의 전통을 현대사회에 계승하기 위하여 도기의 생활화를 제안하는 특별전으로 〈陶器의 멋과 상차림〉전을 개최한다. 전시기간에는 시회(詩會)와 다회(茶會)를 통해 문인의 풍류와 멋을 즐길 수 있는 행사도 함께 열린다.

필름상영회

봄 특별전 관련행사로 〈The Alternatives in Film 영화 속의 대안들〉 필름 상영회가 진행중이다.

- 일시 매 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 오후 3:00-4:30
- 장소 박물관 시청각실
- 상영작 3월 여성...내부로의 고백 / 3월 8일, 22일 오후 3시
4월 여성...현실 그리고 진실 / 4월 12일, 26일 오후 3시
5월 여성성의 확장 / 5월 10일, 24일 오후 3시
6월 또 다른 시각 / 6월 14일, 28일 오후 3시

인턴제도

전시, 학술, 소장품 관리, 조사연구, 출판, 홍보 등 박물관의 제반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인턴제도가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시행되고 있다. 6개월 단위로 총 500시간을 이수하는 인턴사원으로 현재 미술사학과 2학기 이상 수료자 4명이 활동중이다. 이 제도는 학기별로 계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도슨트 제도

도슨트는 박물관의 전시와 관람객의 다리역할을 해주는 문화자원봉사자로서 본 박물관에는 현재 18명의 도슨트들이 관람객들에게 전시작품의 설명과 관람안내를 하고 있다. 도슨트는 전시와 관련하여 6월말까지 계속 모집할 예정이다.

- 기준시간 200시간
- 지원자격 미술사 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있거나 박물관 업무에 관심이 있는 학부생 및 휴학생
- 문의처 박물관 학예실 3277-3152, 3676

조사연구

분원리발굴

박물관은 2001년 6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에 있는 조선왕실백자 도요지(사적 제314호)를 발굴 조사하였다.

- 조사범위 분원초등학교가 입지한 구릉전체 (약 1,554평)
- 조사유구 무기단식연실가마 3기, 공방지 1기, 원형유구 3기, 일제시대 건물지 1기
- 출토유물 청화백자, 순백자 등의 자기편과 갑발, 도침 등 요도구

중국도요지 지표조사

학예실에서는 2001년 12월 중국 월주요를 지표조사하여 국내 최초로 연구자에 의한 월주요 도편이 수집되었다. 자료는 본관에 소장되어 있다.

구림마을 전통문화환경 조성계획

2001년 9월 30일자로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구림마을의 전통문화환경 보존 및 정비계획의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그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보존처리

박물관은 교육인적자원부 국고보조금 지원 예산으로 다음과 같은 보존처리 작업을 완료하였다.

- 유물보존 처리 금속 도자기 유물 227점
- 수장고내 유물 보존환경 개선

기증

박물관을 아껴주시는 뜻있는 여러분들의 기증이 지속되어 박물관 소장품은 그 내용이 점차 풍부해지고 있다. 이번에는 중국도자 용기 복식 현대미술품의 기증이 있었다.

기증자

이병림 (전 부총장)
 양희석 (48년 가정학과 졸업)
 김영호 (전 독문과 교수)
 강애란 (조형대 미술학부 교수)
 박일순 (조형대 미술학부 교수)
 村上伸之
 김성태
 박노수 (전 동양학과 교수)

기증품

개성항아리, 행담 등 10건 20점
 경기도 항아리 7건 7점
 장릉, 영문타자기 등 15건 52점
 <COOL MIND>, 알루미늄, 1998
 <GREEN>, 나무에 실, 1999
 일본출토 백자청화 편
 중국원대 청화백자 등
 <한강> <겨울정원>, 종이에 담채, 1987

홈페이지

2001년 4월에 공식 서비스를 시작한 박물관 홈페이지에서는 '사이버 전시실', '유물검색' '특별전' 등을 통해 박물관의 새로운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http://museum.ewha.ac.kr>

방문객

한국 국제교류재단 초청으로 방한한 미주 유럽지역 한국 담당 큐레이터 40명이 2001년 9월 12일에 본 박물관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박물관 관람과 함께 도자자료를 실견하고 한국 도자문화에 관한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감상문을 공모합니다.

- 내 용 <또 다른 미술사 여성성의 재현>전과 필름상영회
- 방 법 전시 및 영화 관람 후 박물관 샵에 준비된 용지에 감상문을 내시거나 홈페이지의 사이버전시실 관람 후 감상문을 올리면 됩니다.
- 상 품 최우수상 1명 (박물관우산)
 우수상 1명 (전시도록)
 가 작 2명 (박물관가방)

독자의견

『박물관문화』와 박물관에 의견 있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학예 연구원 장남원 museum@ewha.ac.kr
 Tel. 02-3277-3676 / Fax. 02-3277-3153

국제 학술 심포지움

『한일 근 현대 미술과 여성』

■ 일 시 2002년 5월 31일(금)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

■ 장 소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시청각실

■ 발제자 및 발표주제

- 홍선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한국 근대미술의 여성표상 : 脫性화와 性化的 이미지
- 와카쿠와 미도리 (카와무라카쿠엔 여자대학교 교수)
 근대 일본 누드화의 정치적 의미 동시대 여성작가 작품들과의 비교연구
- 이케다 시노부 (치바대학교 교수)
 1920~30년대 여성상에 나타난 근대 일본의 젠더구조
- 윤난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한국 현대 여성미술가들의 작업 여성주체의 재현
- 강태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How do you wear your body? 이불의 유예된 몸
- 코카즈 레이코 (도치기현립미술관 수석학예연구관)
 일본 여성미술가들의 위치와 정치학 2차대전 전후 유휴작가들을 중심으로
- 김홍희 (쌍지스페이스 관장 홍익대학교 겸임교수)
 탈식민주의 시각에서 본 Korean American Women Artists

행사 당일 주제 발표 요지문 책자 배포, 동시 통역 제공
 추후 논문 전문 수록 책자 발간 예정

※문의처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객원연구원 권영진
 e-mail yjkwon@hotmail.com Tel 02-3277-3152

뮤지움 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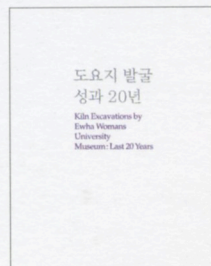
뮤지움 샵에서는 봄 특별전인 <또 다른 미술사 여성성의 재현>전 기념 상품으로는 포스트-잇을 개발하였고, 작가 박현수 씨의 텍스타일 작품인 빅타이와 스카프를 새롭게 판매하고 있다.

뮤지움 샵 세일 (2002. 5. 24 ~ 5. 31)

학교 축제기간에는 박물관의 전 상품을 5-30% 할인 판매할 예정입니다.

출판물

특별전 기념으로 2001년 특별전 『도요지 발굴 성과 20년』과 2002년 특별전 『또 다른 미술사 여성성의 재현』 전시도록이 출판되었다.



『도요지 발굴 성과 20년』
 발행년도 2001년
 페이지수 96p
 가격 10,000원



『또 다른 미술사 여성성의 재현』
 발행년도 2002년
 페이지수 155p
 가격 30,000원



소장품 갤러리

백자철화 포도문 항아리(白磁鐵畫葡萄文壺)

국보 제 107호,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높이 53.5cm, 입지름 19.4cm, 밑지름 18.6cm, 배지름 43.3cm

민족의 아픔과 이념의 전란을 온몸으로 겪은 이 항아리는 일본인에서 한국인으로, 골동상에서 개인 소장가에게로 그 거처를 옮기는 우여곡절 끝에 1965년 이화여자대학교에 소장되었으며, 그 후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조형미를 대표하는 도자기로 사람들의 눈과 가슴에 깊이 남아 있다. 일체의 장식 문양을 자체한 채 기면 전체를 화폭 삼아 그린 넓은 이파리들과 그 사이로 뻗어나간 포도넝쿨은 붓놀림이 자유자재하고 주렁 낭창하게 매달린 포도송이에 철사(鐵砂) 안료로 농담(濃淡)을 부려가며 그린 품이 한 폭의 빼어난 묵포도도(墨葡萄圖)이다. 곧게 솟은 입으로부터 곡선을 그리며 팽창하듯 내려간 어깨, 대담하게 좁아든 저부에서 당당함과 함께 숨을 멎게 하는 형태는 긴장감을 주지만 어깨에서 몸체 중간까지 자연스럽게 드리운 가지의 힘찬 선과 적절한 여백처리로 이내 편안해지고 만다. 그 빈 공간 속으로 바람이 불면 흔들림이 그대로 전해져 올 듯 사실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항아리를 진정한 '백자(白磁)' 이게 하는 것은 '공예'로서 도자기 본연을 충실히 구현했다는 점이다. 동체 중간부 아래 위를 따로 만들어 접합한 흔적과 일부 유약이 벗겨져 태토가 드러난 것을 제외하면 식은 테(冰裂)가 거의 없이 유약이 고르게 입혀졌고 몸체도 정제가 잘 된 고운 백토로 만들어져 매끄럽다. 거기에 발색(發色)이 까다로운 철사안료를 종이나 비단보다 어려운 도자기 표면 위에 능숙하게 구사해 내었다. 즉, 사회 문화가 안정되고 가장 조선적 문화의 성숙함이 무르익던 조선 후기 왕실 관요(官窯)의 질 좋은 원료와 성공적인 시유(施釉), 최적의 번조(番造)로 이루어 낸 기술의 결정체인 것이다.

예로부터 포도는 수태와 건강 장수 풍요 강인한 생명력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책의 'page', 그 어원이 늘어선 포도넝쿨을 의미하는 'pagina'에서 왔음을 상기하며 한유(閑遊)의 시간 조용히 이 항아리를 대하자면 다산(多産)이나 물질적 풍요로움만이 희구(希求)는 아니었으리라. 오히려 한 날 한 날 책장을 넘기듯 즐거움을 따라 걷어 올려지는 만만치 않았을 삶의 이야기와 문기(文氣)어린 고백을 들을 수 있으니...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장남원 / teabowl@hanmail.net

